

지역 소식통



정읍시의회 시민경제플러스 상하수도 연구용역 간담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 의원 연구단체인 시민경제플러스(대표의원 한선미)는 지난 22일 '2023년 정읍시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023년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용역보고서 활용 방안 모색, 용역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청취 및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시민경제플러스는 한선미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이복형·황혜숙·이만재·오승현·고성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경, 유관기관 합동 소화훈련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기주)는 23일 유관기관과 동결기 부안·고창 관내 항·포구의 정박어선 화재 발생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내 항·포구별 특성에 맞는 화재 취약 요인을 분석해 22일과 23일(2일간)에 걸쳐 대형 화재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고창 구시포항과 부안 격포항, 위도 파장금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격포항에 정박한 어선에서 용접 작업 후 잔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 주변에 계류된 선박까지 옮겨 연쇄 화재로 확대되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으로 진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RI-ADME 보고회 개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위한 브릿지 사업계획 수립 연구 인프라 R&D 예산 지원, 국가 사업 유지 전략 방안 논의

정읍시는 지난 22일 '전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이학수 시장과 이만재 시의원, 신정동 일원 연구기관 핵심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RI-ADME 평가 플랫폼 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연계 전략의 국가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인프라와 R&D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인프라 보강을 위해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RI-ADME 평가 플랫폼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된다면 국내 충분한 인프라가 없어 외국 CRO를 활용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실제 RI-ADME 시험평가에 대한 다수 참여 의향이 있어, 방사선의 약 R&D부터 장비 활용, 기술정보 제공까지 기술혁신 전 과정의 지원이 가

능한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읍시가 RI-ADME 산업 중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용역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내실있는 용역 성과물로 반드시 관련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정동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등 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센터,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23일 제302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을 방문에 앞서 림피스킨병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고창군의회, 행감 현지 확인

북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운영·현장 시설물 관리 당부

고창군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덕)는 23일 제302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북분자 클러스터 유원지에서 진행되었는데 관리와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임종훈 의원의 요청에 따라 확인에 나서게 된 것이다. 조규철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고 당부했다. 임종훈 의원은 "북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활용계획 수립 시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며 더불어 부안면민과 협력하여 상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

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에 앞서 위원들은 최근 소 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내 거점소독시설(3개소)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방역 현장에서 림피스킨병 관내 유입차단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방역 근무중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선덕 위원장은 현장점검 후 "이번 현지 확인은 서면 보고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업현장의 상황이나 추진상의 문제점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집행부에 현장의 문제점 및 대안 개선방안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7일부터 지급 시작

2023년 국비 지급대상

1만 4414농가, 366억원 확정

정읍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만4,414명을 최종 확정하고, 국비 366억원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계좌검증 절차 등을 거쳐 농민들은 이르면 27일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첫 시행됐다. 시는 기본형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대상농지와 농업인, 소농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 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전체 30%에 해당되는 4,200여명(50억원)이며,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0%에 해당되는 1만200여명(316억원)이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지 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통합검증 시스템' 통해 지난해 대비 422ha 규모 농지를 새롭게 발굴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부정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일손부족과 이삼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견뎌온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안군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10명에 1억3,400만원이 늘어난 10억 7,200만원을 투입해 4개사업에 총 78명을 선발한다. 유형별로는 노동시장 취업을 위해 필요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반형일자리 24명,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 35명,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

여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특화형일 자리에 5명, 최종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는 전북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 14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부안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행정 보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이며, 우선선발기준(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 점수와 참여 신청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면접(기본직무 및 사회활동능력 평가) 점수를 합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부안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발 이후 관계 법령에 의해 성범죄 경력조사가 이루어지면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참여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농악보존회, 농악 전통예술학교 발표회

고창농악보존회(이하 보존회)가 운영하는 '2023년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 발표회가 22일 오후 8시 고창농악 전수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해당 발표회는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고창농악 이수자들에 의해 체계적인 농악교육이 진행되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는 전라북도 무형유산인 고창농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군민 뿐 아니라 인접 지역과 전국의 농악동호인들이 수강했으며 총 60명의 수강생이 발표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정읍시 '엘리스테이', 전북건축문화상 금상 수상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건축물 '엘리스테이(대표 김기현)가 제 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서 건축문화상 비주거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세계 건축 커뮤니티에서 주관하는 세계건축상에 이은 2번째 수상이다. 엘리스테이는 지하 1층 ~ 지상 7층 규모의 건축물로 전 객실이 5M의 높은 층고와 넓은 실내 면적을 갖추고 있고 개별 스페이스와 풀이 마련돼 있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와 함께 광장의 메인 풀과 루프탑의 인피니티 풀, 최고급 원재료를 사용해 당일 생산·관매가 진행되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까지 조성돼 있어 연중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장산과 용산호에 둘러싸여 있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에 있어 4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과 인근(썬) 일내장산컨트리클럽, 용산호 미르샘 분수 등 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